

아이유의, 아이유에 의한, 아이유를 위한 드라마

“뽕야” 사극 패러디 코믹 연기부터 여진구 유혹...도발적인 매력까지 극과 극 분위기 장만월 역 잘 살려 매회 9별...화려한 의상 보는 재미

가수 겸 연기자 아이유(이지은)의 무한매력이 화면을 짝 채운다. 케이블채널 tvN 토일드라마 ‘호텔 델루나’의 주인공인 그는 어느 것 하나 부족하지 않는 매력으로 드라마 인기를 견인하고 있다. 아이유의 변신을 보는 재미에 7.3%(닐슨코리아)로 시작한 드라마는 가장 최근 방송일인 7월28일 8.7%까지 상승했다. 캐릭터와 그를 돋보이는 화려한 의상, 여기에 섬세한 감정연기까지 ‘삼박자’가 맞아떨어졌다. ‘아이유의, 아이유에 의한, 아이유를 위한’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다.

●“아이유가 장만월”...캐릭터와 혼연일체 아이유는 장만월이라는 캐릭터의 옷을 입고 빛을 발하고 있다. 연출자 오충원 PD와 ‘홍자매 작가’(홍미란·홍정은)가 아이유의 출연 여부에 따라 제작을 결정한 만큼, 아이유는 기획단계 때부터 제작진의 높은 신뢰를 받았다. 이를 증명하듯 아이유는 회를 거듭할수록 캐릭



가수 겸 연기자 아이유가 화려한 의상과 섬세한 감정연기로 시청자들을 사로잡고 있다. 사진제공 | 스튜디오레온

터에 완전히 녹아든 모습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극중 장만월은 델루나라는 호텔을 운영하며 화려함의 끝을 보여준다. 강한 자기애로 과묵한 성격도 드러내긴 하지만, 과거 가슴 아픈 사연에 처연함을 지니고 있다. 상대역 여진구와는 티격태격하면서 델루 연기를 주고받는다.

이를 통해 아이유는 극과 극의 분위기를 오간다. 사극 ‘여인천하’의 유행어 “뽕야”를 맛깔스럽게 소화하는 등 능숙스러운 코믹 연기뿐 아니라 여진구를 향한 사랑 표현도 적극적이다 못해 도발적이다. 지난해 출연한 tvN 드라마 ‘나의 아저씨’에서 처절할 정도로 힘겨운 인생을 살아가는 인물을 소화한 아이유의 ‘흔

적’을 찾아볼 수 없는 완벽한 변신이다.

●‘어린’ 아이유 벗고 ‘어른’으로

아이유의 변신을 정점으로 끌어올리는 데 꼼꼼하게 설계한 스타일링도 한 몫 한다. 블랙과 화이트를 포함해 레드, 핑크 등 다양한 컬러의 의상과 헤어 스타일, 메이크업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화려하게 휘감았다. 매회 무려 9벌 이상의 의상을 갈아입는 변화무쌍한 모습을 연출하는 그를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보는 재미’는 높아진다.

드라마에서 아이유는 클래식, 빈티지, 앤티크 스타일을 활용해 고전영화에서 볼 법한 풍성한 치마와 어깨 퍼프가 강조된 상의를 주로 입는다. 무릎까지 내려오는 H라인, 머메이드(인어의 꼬리) 라인의 치마로 여성스러움을 극대화하고 있다. 귀걸이, 목걸이, 망사가 달린 고전풍 모자, 네일 아트 등 소품으로는 디테일한 변화를 주고 있다. 시선을 빼기 어려울 정도다.

아이유의 담당 스타일리스트 노주희 실장은 “대중이 떠올리는 아이유의 어린 이미지에서 벗어나 성숙한 여성의 모습을 연출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아이유가 아이디어를 내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해 스타일링의 완성도가 높아졌다”고 말했다. **백솔미 기자 bsm@donga.com**

김태호 저력 확인한 ‘놀면 뭐하니?’

김 PD “시청자 의견 적극 반영”
무정형 포맷 실시간 변화 기대

“무한도전’의 그늘이 짙지만 분명히 새롭다.” 방송인 유재석과 김태호 PD가 7월 27일 선보인 MBC 새 예능프로그램 ‘놀면 뭐하니?’에 대한 시청자들의 반응이다. 시청률 4.7%(닐슨코리아)로 출발한 프로그램을 향해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나오지만 연출을 맡은 김 PD는 “결국 대중이 원하는 바에 다가가 것”이라면서 시청자와의 교감에 자신감을 드러냈다.

‘놀면 뭐하니?’는 13년간 ‘무한도전’을 함께한 유재석과 김태호 PD가 1년4개월 만에 다시 손잡은 프로그램이다. 유재석에 맡겨진 카메라가 여러 연예인의 손을 거쳐

다시 돌아오는 과정을 담아 “신선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방송인 양세형, 가수 유희열 등 ‘무한도전’에 출연한 스타들이 다수 등장한 것에 ‘기시감’이 강하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에 김태호 PD는 31일 스포츠동아와 전화통화에서 “시청자의 명확한 반응들을 확인할 수 있어 출발이 좋다고 여기고 있다”고 밝혔다. ‘놀면 뭐하니?’는 처음부터 일정한 주제가 없는 ‘무정형 포맷’을 표방했다. 시청자 의견을 길라잡이 삼아 다양한 갈래로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이다. 김 PD는 이를 위해 “빅 데이터와 유튜브 계정을

통해 시청자 의견을 취합하고 있다”며 “이를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에 반영해 변화를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새 인물이 필요하다는 지적에는 “방송을 거듭하면 해결될 문제”라고 답했다. 릴레이로 카메라를 전달하는 형식에 따라 1회에는 유재석과 친분이 있는 연예인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김태호 PD는 “3일 방송하는 2회부터 예상치 못한 인물들이 나온다”며 “저와 유재석의 만남에서 비롯된 기시감 역시 여러 시도를 통해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김태호 PD

김수현·임시완 컴백...류준열 원톱 체제 끝낼까

류준열, 1년간 주연작만 4편 개봉
‘군 제대’ 김수현·임시완 복귀 시동
남배우 캐스팅 판도 지각변동 예고

배우 류준열의 ‘독주’ 체제가 지속될까. 돌아온 김수현과 임시완의 합류에 따른 새로운 구도가 형성될까.

30대 배우들이 스크린에서 벌일 경쟁과 활약이 어느 때보다 치열해질 전망이다. 김수현과 임시완을 비롯해 강하늘 지창욱 등 스타들이 최근 군복무를 마치고 일제히 연예계에 복귀했기 때문이다. 이들을 캐스팅하려는 영화 제작진의 움직임 역시 명달

아 분주하다.

공교롭게도 이들이 비슷한 시기 군복무에 나서면서 한동안 영화와 드라마 제작진의 캐스팅 경쟁은 격화된 부분이 있다. 특히 주연배우 캐스팅에 따라 투자 규모가 판가를 나는 영화 쪽에서는 20~30대 초반의 배우를 찾기가 어려워진 탓에 ‘구인난’까지 벌어졌다. 그 과정에서 대다수 제작진의 시선은 류준열에 집중됐다.

안정된 연기력에 팬덤까지 갖춘 류준열은 쏟아지는 러브콜 속에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1년간 무려 4편의 주연영화를 쉬지 않고 내놓고 있다. ‘독전’(520만 명)부터 ‘뽕반’(180만 명), ‘돈’(338만 명)이 연이어



류준열

김수현

임시완

흥행하면서 자신의 자리를 확고히 굳혔고, 7일에는 새로운 주연영화 ‘봉오동 전투’ 개봉을 앞두고 있다.

경쟁 상대가 될 만한 또래 배우들이 대부분 군 복무를 하는 틈에 급성장한 류준열은 그만큼 강점도 탁월하다. 부담 없이 여러 인물에 녹아들고, 어떤 장르나 소재에 도전해도 제 몫을 해낸다는 평가다. 독립급 이야기인 ‘봉오동 전투’의 원신연 감독 역시 “캐스팅할 때 가장 신경 쓴 부분은

진정성과 친근함이었고 그런 면에서 류준열이 가장 적합했다”고 신뢰를 보였다.

하지만 최근 김수현과 임시완을 비롯해 강하늘, 지창욱, 이민호 등의 동시 복귀로 인해 영화계의 캐스팅 판도가 달라질 가능성도 충분하다.

특히 김수현은 제대 전부터 최근까지 장르와 소재를 막론하고 다양한 영화의 시나리오를 수없이 받고 있는 상황. 제대하자마자 단번에 ‘캐스팅 1순위’의 위치를 되찾았지만 올해 말까지 시간을 갖고 신중하게 복귀작을 고민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임시완은 드라마 ‘타인은 지옥이다’ 촬영에 한창인 가운데 하정우와 영화 ‘보스톤 1947’ 주연으로 나선다. 강하늘과 지창욱을 향한 영화 제작진의 러브콜 역시 뜨겁다.

이해리 기자 golf1024@donga.com

김다미 ‘쉬면 뭐하니?’
1년 공백 깨고 기지개

영화·드라마 본격 활동 재개



김다미

괴물신인으로 불리는 연기자 김다미가 1년여의 공백을 딛고 활동에 속도를 낸다. 지난해 주연한 영화 ‘마녀’에서의 활약을 인정받아 각종 영화상의 신인상을 휩쓸면

서 유망주로 떠오른 그는 최근 활동 계획을 재정비하고 영화와 드라마에 적극 나선다.

김다미는 영화 ‘안녕 나의 소울메이트’ 출연을 확정하고 변신을 준비하고 있다. 영화는 13세 때 만난 두 친구가 20여년에 걸쳐 우정을 쌓으면서 함께 성장하는 이야기다. 동명의 중국영화가 원작으로, 김

다미에게는 ‘마녀’ 이후 두 번째 영화 주연이다.

김다미는 그동안 ‘마녀’ 후속편을 기다리면서 실력을 다지는 시간을 보냈다. 미스터리 액션 ‘마녀’를 통해 비밀을 지닌 인물의 드라마와 고난도 액션을 동시에 소화해 일약 스타덤에 오른 덕분에 여러 출연제안을 받았지만 성급히 나서기보다 차분하게 기회를 엿봤다.

‘안녕 나의 소울메이트’ 제작사 레진스

튜디오는 “김다미의 새로운 모습을 볼 수 있는 작품”이라며 “내년 초 촬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김다미는 영화 촬영에 앞서 드라마 ‘이태원 클라쓰’를 통해 시청자와 먼저 만난다. 이태원을 무대로 청춘들이 벌이는 이야기를 담은 작품이다. 지난해 데뷔한 김다미가 처음 도전하는 드라마로 유재명 등 실력과 배우들과 호흡을 맞춘다.

이해리 기자

‘프듀X’ 팬 투표 조작 의혹
CJ ENM 사무실 압수수색

케이블채널 엠넷 오디션프로그램 ‘프로듀스X101’이 ‘투표 조작 논란’과 관련해 경찰이 제작진 사무실과 관련 업체를 압수수색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7월 31일 오전 서울 상암동 CJ ENM 내 ‘프로듀스X101’(프듀X) 제작진 사무실과 문자 투표 데이터 보관업체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프듀X’는 앞서 19일 최종 멤버 11명을 선발하는 마지막 방송에서 1위부터 20위까지 득표수가 특정한 숫자의 배수로 차이가 난다는 점에서 조작 의혹에 휩싸였다. 또 유력한 데뷔 주자로 꼽혔던 연습생들이 탈락하고 의외의 인물이 데뷔 조에 합류하면서 논란이 증폭됐다.

논란이 커지자 엠넷은 26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압수 자료를 바탕으로 실제 투표 결과 및 조작여부 등에 대한 의혹을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은 “압수한 자료를 바탕으로 실제 투표 결과 및 조작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지혜 기자**

성폭행 혐의 강성욱, 다시보기 퇴출



강성욱

성폭력 혐의로 재판을 받는 뮤지컬 배우 강성욱이 과거 출연한 프로그램들이 일제히 다시보기 서비스를 중단했다. 채널A ‘하트시그널’ 제작진은 강성욱이 출연한 2017년 방송

의 다시보기를 7월31일 멈췄다. KBS 2TV 주말드라마 ‘같이 살래요’ 측도 다시보기를 중단했다. 강성욱은 2017년 8월 자신의 친구와 부산의 한 주점을 찾아 여종업원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 중 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다. 서울중앙지법 제29형사부는 7월2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치상)으로 강성욱에 징역 5년 선고했다.

‘CSI 그리섬 반장’ 성우 박일 별세



박일

‘외화 더빙’으로 유명한 성우 박일(본명 조복형)이 별세했다. 향년 69세. 7월 31일 한국성우협회 등에 따르면 박일은 이날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특별한 지병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확한 사인은 공개되지 않았다. 박일은 1967년 TBC 3기 공채 성우로 데뷔해 1970년부터는 MBC 성우극회 소속 4기로 활동했다. 미국드라마 ‘CSI’의 길 그리섬 반장과 디즈니 애니메이션 ‘토이스토리’의 주인공 버즈 라이트이어의 목소리로 익숙하다. 빈소는 서울 서초구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발인은 2일 오전 8시15분.